

1997년 11월 17일 월요일

(1132호)

주인으로서의 위치 찾을때 아름다운 역사는 시작

우리 사회에서 선거라는 것이 일상으로 되고 올해도 여지없이 학생회 선거철로 11월을 맞이했습니다. 선거가 시작되면서 많은 걱정이 나섰습니다. 더러운 정치판을 보며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늘어났던 것처럼 학생회와 학생운동이 학우들의 신뢰를 잃어가면서 98년을 준비하는 학생회 선거에도 많은 학우들이 무관심하지는 않을 것이지...

구체적인 대안을 가진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비판 보다 정치적 의혹을 불러일으킴으로 흠집내기만 난무한 정치판의 선거와는 다른 정당한 학생회 선거라는 것을 치르겠다는 다짐, 상대 후보와 맞서기만 하기 보다는 서로 존중해 주고 배울 것을 배우는 청년도운 선거를 치르겠다는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선거판을 보며 많이 우려스럽고 부끄럽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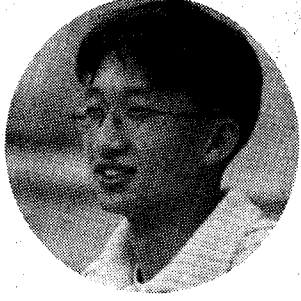
선거는 그 자체로 현재의 학생회의 모습을 평가하고 새로운 대안을 학우들과 함께 마련하는 대중운동이 되어야 함을 알기에 보다 경솔하게 그러나 진지하고 절실하게 학우들 곁으로 가고자 합니다. 학생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정 - 김동일(회계 91)

이념적 자신감이 분명하지 못하기에 자신 있게 학우들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문제는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자신이 왜 운동을 하는지 분명히 하고 학우들과 일상적인 교감의 장을 확대하여 학우들의 생각과 일관의 고민을 일상적으로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우들의 목소리가 담긴 성, 환경, 문화 등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관심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때에 학생회는 보다 힘 있는 학생회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역사, 학생운동이 역사가 아름답지 못한 점이 있었다면 그 이유는 학우들, 국민들이 주인으로서의 위치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오직 학우들과 우리의 행동이 있을 때에 진정한



부 - 이준혁(한의 94)

아름다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평범한 진리로부터 98년 학생회를 책임지고 싶습니다.

◇공약◇

1. 학생운동
 - △6기 한총련의 비폭력 선언 제안, △한총련의 가장 선거운을 우리의 힘으로 치르자, △한총련 총노선 채택을 위한 전국 모든 학교의 총투표 제안
2. 학생회
 - △예산미준기지 반환운동 대 중화, △젊은이의 삶을 보다 건강하게 할 다양한 민중연대 운동의 활성화, △북한동포돕기 상설화, △8월 지역주민축제 △학우들과의 일상적인 교감의 장을 확대하기 위한 한일관 한강의성 책임지기 운동과 토론 마당 진행 △다양한 학우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거론

서울캠퍼스 98학년도 총학생회 선거가 19일 20일 이틀간 치러진다. 현재 총학생회 후보는 △정: 김동일(회계 91) 부: 이준혁(한의 94) 후보단과 △정: 김봉석(경제 95) 부: 허인옥(의학 94) 후보단, △정: 이경희(법학 94) 부: 장기영(법학 96) 후보단 그리고 총여학생회 △정: 이노경진(국문 96) 부: 오신성희(지리 96) 후보단이다. 이에 우리 신문에서는 네 후보 출마의 변과 질의 응답을 게재한다. (편집자)

화조성, △3회 인권영화제 유치, △단편영화와 함께 하는 젊은영화제, △소모임이나 동아리의 활성화를 위한 교양학교 진행 △한달에 한 번 진행되는 작은 콘서트 "경진다리 문화제" 진행 △진정한 혁신을 위한 전제 △일꾼교양학교의 정기적인 진행과 일꾼교양지 발간

3. 학원지주

△학생생활규정 철폐와 학생 자치권 수호 △총학생회에서 직접 개설하는 교양강좌 "청년골드" 진행, △모든 강의에 대한 강의평가 진행, △총학생회 추천과목의 질적 도약(현장실감 강화와 학생 참여의 폭 확대), △교양개편 준비 △학부제, 각 학부와 학부로의 개편을 준비하는 단위와 마음을 모으는 일과 연구 · 조사 사업 △동문회관 건립, △경희백서 발간, △청산리지 못한 일제의 잔재인 도로원 표 뽑기, △경희 발전기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경희발전 위원회 건립 △도서관 자치위원회 활성화

한총련 운동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학생운동을 만들겠습니다.

매년 이 시기가 되면 대부분의 학우들의 무관심속에서 학생회선거가 치러집니다. 50%가 겨우 넘는 투표율, 총학생회는 9000명 학우들 중에 2500여명 정도의 지지만 얻으면 당선 되는게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른 후보들에게 갔던 표들의 권리는 실종되고, 4000여명의 무관심은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누구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생회는 자신의 계획대로 1년의 사업을 진행하고 거기에서 소외된 학우들은 더 이상 학생회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80년대 학도호국단을 넘어서 학생자치질서로서의 학생회 건설의 역사, 그리고 전대해 건설의 역사는 군사독재 시절의 대학을 가로지르는 하나의 신화였습니다. 하지만 멈추어 버리고 완성된 학생회와 한총련은 이제 폐허와 각질화된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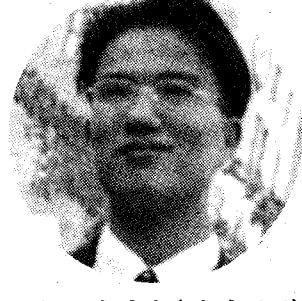
한총련 운동에 종지부 새로운 학생운동 구축



정 - 김봉석(경제 95)

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역사는 변화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도태시키면서 당당하게 전진해왔습니다. 이제 공허하게만 울리는 혁신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과거의 신화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들과의 단절을 통해 진정한 새로운 도약으로 대학혁명을 이루어내야 할 시기인 것입니다.

현재 '학생회의 위기'는 '학생회'의 위기가 아니라 '학생'들의 위기가 아닙니다. 학생들은 여전히 자기 인생의 계획속에 관심있고 좋아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념의 깃발을 가지고 학우들의 목소리를 압도하려고 했던 학생회의 오만과 독단입니다. 스피커 소리를 낮추어 달라는 학생들의 절박한 소리는 정치투쟁 일반도의 학생회에 대한 무관심과



부 - 허인옥(의학 94)

냉소로 바뀌어 지는 것입니다. 학생회가 당당하게 학우들의 구심에 서 있으려면 학우들의 다양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함이 발휘되고 움직임들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개인적 열망과 결합되지 않는 공동체에 대한 발상은 학생회의 집단적 환각일 뿐입니다.

학생회의 위기와 경희 발전의 상을 가지고 학우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경희대 학생으로서 우리 대학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에 대한 서로의 교감과 합의속에서 진정한 제30대 경희대 총학생회는 자기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공약◇

1. 한총련 운동의 종지부!

- 새로운 학생회운동 건설
△한총련 탈퇴여부 총투표!
△한총련 전면 개혁과 새로운 학생회 운동체 건설
2. 투명한 학생회 운영
△29대, 30대 총학생회 예산 결산 감사, 예산자치위원회 신설
△인복위원장 전체 직선제
3. 학부제 전면 재검토
△총학생회 중심의 학자추진 위원회 축소!, 단대, 과 중심의 학자추진 운영
4. 98년도 교양백서 발간
5. 장애인 환경문제 개선
6. 중앙도서관에 사물함 설치
7. 공간 119
8. 무료이시점 운영센터
9. 교수채용에 앞서 교과과정 전면재검토
10. 21세기, 정보화하는 생존의 문제이다.
11. 제3 의학으로 인한 경희의 특성화
12. 회의만 하는 국제교류, 이제는 학술교류로

폭력적인 운동권은 가라 하나의 경희를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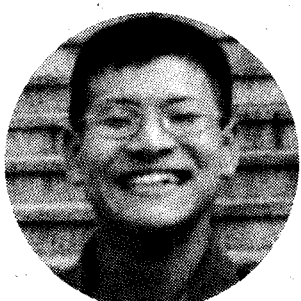
어느덧 고향산에 입산하여 수련을 시작한 지도 여인 5년이 돼 가고 있습니다. 5년 전 처음 캠퍼스에서 느꼈던 따스함과 포근함! 입학 후 지금까지 계절마다 느끼는 살아 숨쉬는 듯한 캠퍼스의 다채로운 모습들! 봄이면 새싹의 발육정도, 여름이면 녹음의 농도, 가을이면 단풍의 농도, 겨울이면 눈꽃의 변화된 모습을 3월65일 매일마다 감지해 낼 수 있을 만큼 생동감 넘치게 살아 숨쉬는 캠퍼스는 나에게 인생의 다짐을 완결해 개척해 낼 수 있는 초자연적 에너지들을 불어 넣어 주었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진정으로 학우들과 함께 호흡하고 생활하는 학생회를 꾸리고자, 21세기 대학 무한 경쟁에서 생존하여 철두의 평문대로의 도약을 이끌어 내고자, 능력 있고 힘있는 또한 창조적 기능을 갖춘 강력한 자주경희 30대 총학생회를 만들어 보고자 이렇게 여러분 앞에 당당하게



정 - 이경희(법학 94)

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경희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수하게 개념을 떠나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한총련의 개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힘도 우리 경희대의 자치권이 완전히 확보된 후에 가능한 것이며, 우리 9년경희대인 대동들의 힘을 보여줄 때 가능한 것입니다. NL이나 PD나 하는 일부 운동권만의 개혁추진만은 대다수 구성원들의 소속감 결여로 인해 개혁 추진의 동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 9년경희대인은 대학 정신과 사회 비판 제기 기능을 지키기 위해서 건전한 학



부 - 장기영(법학 96)

생운동 확산에 다같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며, 그것이 바로 21세기 미래의 학생운동의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해 가는 역사 창조의 주역으로 우뚝 서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9년경희대인은 대동 단결하여 완전한 경희의 자치권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건전한 학생운동 확산에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희 이경희, 장기영에게 표를 주셔서 98년도에는 정말로 새로운 학생회, 9년경희대 모두가 함께 호흡하고 생활할 수 있는 학생회를 건설해 바랍니다. 감동 주는 총학생회를 함께

건설해 봅시다. "경희"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진솔하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공약◇

1. 학생운동
 - △건전한 학생운동 확산에 경희대 총학의 주도적 역할 담당 △대학 정신과 사회 비판 제기 기능 수호
2. 학생 자치권
 - △에 · 결산 심의위의 감사 기능 강화 △예산안 사전 심의의 제의 철폐화 △예산 집행권의 학생 자치 시행 △재정 및 사업의 공개 △총학 집무실 새단장 - 총학의 이미지 개선
3. 교육 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
 - △각 단대(과, 학부)별로 모니터 요원 상주 △학우 신문고 시행 - 총학생회와의 "포청천화" △학생 생활 규정 수정 · 보완 △실습 기자재 확충 · 보완 △시각과 기자재 대여 절차 간소화 △각 단대 도서관의 활성화 △생활 편의 시설 확충 △계절학기의 선택 기회 보장 △시설 확충 및 관리 철저(자판기, 정수기, 전화기, 해피콜 등등) △순환 스크 버스 운행 추진
4. 도서관
 - △종합강의동 내 1천석 규모의 열람실 확보 추진 △도서관 자치 위원회의 기능 강화
5. 대학 문화
 - △사회교육원의 활성화(주민 참여 유도) △지역 주민과 학교와의 유대 강화 △내실 있는 교지 편집 △표현의 자유 보장 △15대 동원기 강화 △여성문화제 제정 지원 및 프로그램 보완 △성문과 교양 선진
6. 학부제
 - △독립된 학부 학생회(8개) 건설 지원 △교과과정 심의의 위 에 교과 개발 위임 및 지원 △수학과 독립 학과 편성 추진 △비 인기 전공의 사정화 방지(투자 확대)
7. 총학생회 - 총동문회 연계 사업 추진
 - △"경희인의 밤" 확장 △경희 산악회 창립 및 운영
8. 개교 반세기 기념 사업
 - △98경희인 모듬 모꼬지 추진(9천원 이하) △서울 · 수원 배움터 연합 전체 학생 총회 추진(1천9백원 이하)

후보자 질의응답

못한 점, 학우와 국민대중과 합의할 수 없는 폭력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그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총련의 변화는 백만 학우들이 주인이 되는 한총련으로의 변화이지 한총련을 무너트리면서 이루어지는 변화는 아니며 그 변화는 무관심과 회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운동은 우리 민중의 절박한 요구인 자주, 민주, 통일과 인간중심의 이념을 명확하게 세우면서 학우들과 국민대중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학우들이 관심있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 주목하여 다양한 운동을 펼쳐야 합니다. 그것은 성문제, 환경문제, 교육문제 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혁신의 방도로서 6기 한총련의 비폭력 선언과 한총련 의장 선거를 우리 힘으로 보다 대중적으로 치를 것, 그리고 한총련 총노선을 채택하기 위해서 전국 모든 대학에서 총투표를 해야 한다는 제안을 합니다.

김봉석 · 허인옥

자주, 민주, 통일의 넓은 이념을 버리지 않는 한 한총련 혁신은 불가능하다. 한국사회를 미래국주의에 의해 조종되는 식민주의라는 인식을 버리지 않는 한 한총련은 대중과 괴리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대중들은 사회의 모

순이 미래국주의에 의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리해고되어 갑자기 직장을 잃어버린 가정에 사회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통일을 해야 한다고 할때 과연 누가 동조할 것인가?

현실의 모습을 직시하고 그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때 그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는 것이다. 더이상 폐쇄적 사상으로 사회를 제한하지 말고 세계적 자본주의 질서의 흐름의 파열을 찾아 거기서부터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다양한 사상을 투쟁으로 시기각각 격화하는 대중에 상시적으로 결합하는 대중의 조직으로서 새로운 학생운동의 전망을 내야 한다.

이경희 · 장기영

한총련을 개혁하여 건전한 학생운동 확산에 전력하겠습니다. 현재의 상황, 즉 김영삼 정권과 검찰의 한총련 이적 단체 규정 및 탈퇴 강요, 그리고 한총련의 힘겨운 사수운동의 힘겨움으로 발전적 학생운동도 기대하기 어렵고 한총련의 사수도 어려울 것입니다. 대한 학우들 주권 아래서 국민의 동의 및 지지를 받지 못하는 학생운동은 전권과 검찰의 잔악한 탄압 속에서 민주와 통일을 추진할 수도 없을 뿐더러 살아 생존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



정 - 이노경진(국문 96)

87년 남녀 고용 평등 법과 93년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또 올해에는 동성동반 금혼이 위한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 논의 중이라고도 합니다. 여성들의 지난한 투쟁의 결과로 여성에 대한 편견은 예전에 비하면 조금이나마 상쇄되었던 것이지요. 이런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성도 능력도 능력도 있었던 안일일이 없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여성 성씨 풍조 등 여성에 대한 많은 사회적 편견을 이용해 자본은 비정규직과 비숙련직에 여성을 진출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취업이 여성의 용모 제한이 암묵적으로 통용되고 있지요. 이승희 열풍을 비롯해서 다이어트 관련 상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자본에 의해 왜곡된 성이 범람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은 어떻게 할까요? 물론 대학에서 제도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차별은 찾기 어렵



부 - 오신성희(지리 96)

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빈번히 발생하는 성폭력의 해결을 놓고 대학가가 진통을 겪었습니다. 남학생에게 밀려 취업추진서 한 장 번번히 받아 보기조차 어렵습니다. 흔히 대학을 진보적이라고 하지만, 이미 학습되어 있는 여성에 대한 편견들이 대학에서 올바른 인간의 상과 모습을 재학습하고 실천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여성과 남성을 규정하는 것은 여성들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여성들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남존여비, 가부장제 등 봉건사상과 자본주의가 가져온 성상문화 등으로 왜곡되어 온 여성에 대한 편견을 깨고 새로운 여성상과 남성상을 정립해야 합니다. 사회의 여성적인 삶에 대한 규정을 거침없는 문제 제기로 깨어 나가는 여성, 편견이 아닌 열린 의식으로 여성의 삶을 바라보고, 함께 할 수 있는 남성, 여성과 남성이 함께 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성

적, 남성적이라고 규정하는 낡은 편견이 없는 세상, 여성이기에, 남성이기에 당당하게 참인간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98년 경희대에서의 우리식 혁명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공약◇

1. 성개발? 성문화 사랑과 인격의 성문화 만들기
 - △올바른 학내 성문화 정착을 위한 성문화 토론회 △성상 문화 달력이나 슬링등을 바꿈
2. 포로노 산업에 일격을 - 회기동정화운동 △학내 성폭력 해결을 위한 자주 경희 지침 만들기
3. 주에서 중심으로서, 새로운 대학문화, 여성 문화 만들기
 - △3월5백여 학우들의 나들이 - 콘서트에 강화 △여학우 공동체, 삶이 바뀔다. - 소모임 건설, 지원 △출발부터 당당하게, 새대기가 만드는 대학문화 - 새대기 여학우 예비대학 △부모성 함께 쓰기 운동
3. 여성의 눈으로 세상보기
 - △화장실에서 세상을 봅니다. - 화장실 소자주 경희 여학우 소식, 자주경희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학우의 눈으로 - 개간지 '자주여성' 제발간 △'여성'을 주제로 기획 전시를 합니다. - 정기적인 여성의 거리

1. 97년 총학생회에 대한 평가

김동일 · 이준혁

29대 총학생회의 결정적인 실수는 탈락식 사업방식을 극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 운동을 벌이기 위해 과거의 것을 버릴 줄 아는 과감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29대 총학생회 일꾼들에게는 그러한 과감함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총학생회 사업 중 가장 성과가 있었던 것은 북한동포돕기 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이 모범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학우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렇게 운동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관성과 조급상에서 벗어나 늘 학우들속에 있는 일꾼으로 거듭날 때 학생회가 혁신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되새기는 것이 29대 총학생회를 평가하면서 우리가 새겨야 할 교훈입니다.

또 하나 29대 총학생회는 선거 시기에 약속한 많은 것들을 지키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공약을 할 때 현실가능성을 정확하게 타산해 보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공약은 하면 좋은 것을 중심으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학교의 상황과 일꾼들의 상황에 지켜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실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약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얻은

2. 97년 총학생회에 대한 평가

김봉석 · 허인옥

29대 총학생회는 지난 선거 운동기간 자료집에서 열거한 공약들을 이야기 하고 꼭 지키겠다고 했지만 공약이행은 젊은 영화제에 하지 못했습니다. 약속했던 음악을 100% 지키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15개 이상의 공약중 1개의 공약밖에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총학생회가 애초에 학우들과의 약속을 지킬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아니면 총학생회 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반증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기로 했던 약속은 반드시 지킵시다. 혹은 지킬 수 없으면 학우들에게 정당하게 할 수 없음에 대해 밝히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것조차 할 수 없다면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대학혁명 1세대 총학생회는 할 수 있는 공약을 반드시 지키는 총학생회가 되겠습니다.

이경희 · 장기영

97학년도 총학생회는 '세상을 자기에게 맞추려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우적함으로 세상을 조금씩 나은 것으로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세상에 맞추려는 형명함'으로 기존의 학생회 사업을 답보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한 29대 총학

3. 97년 총학생회에 대한 평가

김봉석 · 허인옥

29대 총학생회는 지난 선거 운동기간 자료집에서 열거한 공약들을 이야기 하고 꼭 지키겠다고 했지만 공약이행은 젊은 영화제에 하지 못했습니다. 약속했던 음악을 100% 지키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15개 이상의 공약중 1개의 공약밖에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총학생회가 애초에 학우들과의 약속을 지킬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아니면 총학생회 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반증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기로 했던 약속은 반드시 지킵시다. 혹은 지킬 수 없으면 학우들에게 정당하게 할 수 없음에 대해 밝히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것조차 할 수 없다면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대학혁명 1세대 총학생회는 할 수 있는 공약을 반드시 지키는 총학생회가 되겠습니다.

이경희 · 장기영

97학년도 총학생회는 '세상을 자기에게 맞추려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우적함으로 세상을 조금씩 나은 것으로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세상에 맞추려는 형명함'으로 기존의 학생회 사업을 답보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한 29대 총학

4. 97년 총학생회에 대한 평가

김봉석 · 허인옥

29대 총학생회는 지난 선거 운동기간 자료집에서 열거한 공약들을 이야기 하고 꼭 지키겠다고 했지만 공약이행은 젊은 영화제에 하지 못했습니다. 약속했던 음악을 100% 지키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15개 이상의 공약중 1개의 공약밖에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총학생회가 애초에 학우들과의 약속을 지킬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아니면 총학생회 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반증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기로 했던 약속은 반드시 지킵시다. 혹은 지킬 수 없으면 학우들에게 정당하게 할 수 없음에 대해 밝히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것조차 할 수 없다면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대학혁명 1세대 총학생회는 할 수 있는 공약을 반드시 지키는 총학생회가 되겠습니다.

이경희 · 장기영

97학년도 총학생회는 '세상을 자기에게 맞추려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우적함으로 세상을 조금씩 나은 것으로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세상에 맞추려는 형명함'으로 기존의 학생회 사업을 답보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한 29대 총학

가 지켜야 할 대학 정신과 사회에 대한 비판 제기 기능은 상실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학 정신 수호와 사회 비판 제기라는 사회적 · 지성인으로서의 역할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학 정신을 지키고 사회 비판 제기 기능을 살리면서 민족의 통일과 계파 완성에 지적 · 지성인으로서의 대학생 조직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미래의 학생운동을 추진하고 정착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한총련을 개혁하고 흐름을 바꾸어 간다면, 머지 않아 정권과는 발전적 상호보완 관계로,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학생 조직으로 명실상부하게 우뚝 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주 경희 30대 총학을 이끌게 된다면 한총련의 흐름을 바꾸는 대역사의 창조자로서 경희대를 대표하여 노력할 것을 '경희'의 이름으로 9천학우들에게 약속 드리는 바입니다.

1. 11대 총여학생회 평가.

이노경진 · 오신성희

여성 연대 의식의 방향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4계절의 농민 학생 연대 활동과 1년의 공백기를 뚫고 다시 진행한 기치촌 활동 등을 진행하고 또한 수요 집회, 금요 집회의 경우는 일관만 때가 되면 조직화해서 다니오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을 학우들과 많이 풀어내지 못했던 한계가 있습니다. 기치촌 활동도 경희대 선진과 교양인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는 학우들과 함께 하지 못한 사업이 되었습니다. 또한 봄 대동제와 가을의 여성문화제는 새로운 시도를 했던 사업입니다. 총여학생회의 '아심작'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간의 여학생회는 대중제동 구체적인 대중 사업이 부재했던 것을 비판하고 학우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대중 사업의 정형을 세우고자 한 것이지요. 그러나 때가 되어서 고민하고 던져 주기 식 사업으로 새로운 시도에도 불구하고 역시 여학생들과 자본단단의 행사가 된 점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학생문화제의 모의 결혼식 같은 경우는 화장실 소자보통을 통해 학우들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을 고민하기도 했지요.

즉, 새로운 시도와 모색으로 예전 총여학생회와 차별성이 보였지만, 여전히 대중적이지 못한 한계를 드러냈지요. 11대 총여학생회는 여회10년을 돌아보며 경희 여학우의 진정한 대중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첫 시작이었던 셈입니다.

2. 총여학생회가 학내에서 갖는 구조적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

총여학생회의 정형이 될만한 독자사업의 부재와 여회 스스로도 대중 사업에 대한 감이 미흡했습니다. 게다가 여학생회 단위 조직력이 약한 한계가 있기에 각 단대마다의 특성을 총여학생회가 하나로 묶어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12대 총여학생회만의 고민이 아닌 내년 한해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각 단대 여학생회의 조직력을 강화하는 3년 지대계를 세우겠습니다. 학생회의 사업일정에 우리의 내용 없이 이해되지 않고 여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사업을 학생회에 제안하겠습니다.